

발표2.

교학단과 훈련으로 교학정체성 확립
-교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홍진(교무, 원불교 대성교당)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 정체성 확립

- 교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

1.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수행법

- 1)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훈련법
- 2) 수도인의 일과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2.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 정체성 확립

- 1) 원불교 교화 정체성
- 2) 일일시시로 자기훈련 교화단으로 인류훈련
- 3) 교화단 중심의 교구 자치 교화

1.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수행법

1)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훈련법

원불교를 연 동기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인데, 이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 팔조의 교법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교법 실천을 생활 속에서 하도록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대조하고 챙기도록 하였다⁹⁾. 이러한 '일상 수행의 요법'의 초기 형태는 원기 23년 「회보」 44호에 '본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된다.

본회의 목적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

1.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
2.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3. 이론만 하지 말고 실행을 양성하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9) 『대종경』 제3 수행품 1장.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

1.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2.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3. 배울 주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4.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자.
5.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¹⁰⁾

그 제목이 '본회의 목적'이라는 의미는 이 일상 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것이 불법 연구회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일상 수행의 요법'의 교리상 위치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산 종사는 "우리는 평생 '일상 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¹¹⁾고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일상 수행의 요법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다¹²⁾. 그런데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4조가 정기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이므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넓은 의미에서 정기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산 종사는 이러한 정기훈련.상시훈련과 관련하여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대종사님께서 밝혀 주신 정기훈련 11과목과 상시훈련 12과목으로 훈련하면 누구나 다 불보살의 인격을 이룰 수 있고 제생의세의 대임을 달성시킬 수 있으며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¹³⁾"이라고 하였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읽고 실행하면 성불에 족하고, '정기훈련.상시훈련'으로 훈련하면 누구나 다 불보살의 인격을 이룰 수 있고 제생의세의 대임을 달성시킬 수 있으며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대조하고 챙기며,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상시훈련을 실천하면 개교의 동기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또한 상시훈련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두었다¹⁴⁾. 이러한 상시일기 용지는 원기13년 9월(음)경 처음으로 인쇄된다¹⁵⁾. 원기13년 이후 불법연구회에서 회원들의 상시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하여 매일 상시일기 기재가 꾸준히 권장되는데, 원기23년 9월 「회보」 제47호에 발표된 '사종일기(四種日記) 시행'은 이를 더

10) 「회보 제44호」, 『원불교 교고 총간』3, 이리: 원불교출판사, 1994), 206-207쪽.

11) 『정산종사법어』 제11 법훈편 7장.

12) 『대종경』 제3 수행품 1장.

13) 『대산종사법문집 Ⅱ』 제5부 대각개교절 경축사, 훈련하는 교단.

14) 『대종경』 제3 수행품 1장에는 '일기법'이라 되어 있으나,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단규세칙'의 내용을 보면 그 일기가 상시일기임을 알 수 있으며, 『교사』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1장 새 회상(會上)의 공개(公開) 4.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에는 상시일기로 표현되어 나온다.

15) 『월말통신』 제7호,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1권(원불교출판사, 1994년), 44쪽.

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계기가 된다. 공부인이 삼대력을 얻기로 하면 상시훈련법으로써 상시일기법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하며 사종일기법을 장려하고 있다.¹⁶⁾ 사종일기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게 한 4종류의 상시일기로서 '정식일기, 간이일기, 유무념, 태조사'이다. 정식일기와 유무념은 원기 16년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의 '단규세칙'에서 이미 밝힌 것인바, 정식일기는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과 계문과 혜시.혜수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고, 간이일기¹⁷⁾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중 3조(교과서연습).4조(의두연마).5조(염불좌선)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중 3조(의두양해).4조(전문입선).5조(예회출석) 및 계문을 기재하는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사종일기법 장려 이후 각 지방별 사종일기 실행인 명단이 「회보」에 발표된다.¹⁹⁾ 그리고 「회보」 제50호와 제53호에는 일기법이 시행된 최초(원기13년)부터 원기23년 현재까지 5년 이상을 계속 일기법을 실행한 회원들이 소개되는데²⁰⁾, 10년간 계속한 이는 8명, 9년간 계속한 이는 7명, 8년간 계속한 이는 3명, 7년간 계속한 이는 2명, 6년간 계속한 이는 3명, 5년간 계속한 이는 8명이다. 특히 이공주는 10년간을 계속하는 중에 1일도 빠지지 않고 실행하였다고 소개되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상시일기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에게 상시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하여 교화단을 조직한다. 원기 16년에 발간된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총론'에는 "종사주 단독(單獨)하신 힘으로써는 그 각지에 산주한 회원의 공부와 사업을 고루 훈련하기 어려운지라, 고로 이에 회원 9인으로 1단을 삼고 단장을 1인 가(加)하여 단장은 종사주에게서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하고, 그 아래 9인은 또 자기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매인하(每人下) 9인씩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이 단을 조직하려함"이라고 밝히고, '단규세칙'에는 "재가.출가를 물론하고 상시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하여 매일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 이는 단원 각자로 하여금 상시훈련 성적을 매일 (상시)일기표에 기재하여 자기가 자기 공부의 善.不善을 알게 하며, 자기가 자기의 工夫心을 스스로 권면케 하는 것²¹⁾"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단원의 상시훈련에 대하여 단장은 그 성

16) 「회보」 제47호,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3권(원불교출판사, 1994년), 263-264쪽.

17) 「회보」 제59호,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3권(원불교출판사, 1994년), 482쪽.

18) 현 『정전』의 '상시일기'에는 유무념, 학습상황, 계문, 태조사가 있다. 이 중 학습상황과 계문은 간이 일기의 특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현 상시일기에는 사종일기 중 간이일기, 유무념 및 태조사가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 「회보」 제47호, 앞의 글, 264-265쪽.

20) 「회보」 제50호,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3권(원불교출판사, 1994년), 306쪽 ; 「회보」 제53호,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3권(원불교출판사, 1994년), 371쪽.

21)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단규세칙' 제1장 공부방면급 사업방면 제1절 단원으로서 매일 일기기재 조사법.

의를 권면하고 방법을 지도하며 공부의 진퇴를 대조하기 위하여 매월 그 성적을 조사²²⁾"하도록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단에서 단원 스스로 상시일기를 기재하고, 매월 단회에서 단장은 그 성의를 권면하고 방법을 지도하며 공부의 진퇴를 대조하기 위하여 매월 그 성적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원기 17년 발간된 『보경육대요령』의 '학력고시편' 연구과 평가에 이를 반영하였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최초의 교서로 평가되는 원기 17년 발간된 『보경육대요령』의 '학력고시편'에는 삼학(三學)에 대한 평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 연구과 평가는 '연구과 일기부, 연구과 정기전문부, 연구과 최고부'로 되어 있다. 연구과의 기초인 일기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단원으로서 매일 일기 조사하는 법'에 대한 교육과 '단장으로서 단원의 일기성적을 매월 조사하는 법'에 대한 교육 및 교화단에 대한 제반 원칙과 세칙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의 단규 원칙과 단규 세칙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 연구과 일기부²³⁾

제1과 일기표 내 상시응용 주의사항 육조를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 방식에 능한 자.

제2과 일기표 내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육조를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 방식에 능한 자.

제3과 일기표 내 사업성적과 의견제출과 혜수 혜시 상황을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 방식에 능한 자.

제4과 일기표 내 삼십계문을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 방식에 능한 자.

제5과 단규 원.세칙의 의지를 해석하고 단장 조사 방식에 능한 자.

연구과 일기부의 제1과부터 제4과까지는 단원이 매일 조사하는 일기표에 있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사업성적, 의견제출, 혜수.혜시, 삼십계문'을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 방식에 능한 자가 해당되고, 제5과에는 단규 원.세칙의 의지를 해석하고 단장 조사 방식에 능한 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을 삼학 중 연구과 공부의 필수 기초 과정으로 삼은 것이다.

교화단에서 단원은 매일 스스로 상시일기를 기재하고, 단장은 그 성의를 권면하고 방법을 지도하며 공부의 진퇴를 대조하기 위하여 매월 그 성적을 조사하는데, 단장이

22)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단규세칙' 제1장 공부방면급 사업방면 제2절 단장으로서 단원의 일기 성적을 매월 조사하는 법.

23) 『보경육대요령』 제4장 학력고시편.

조사한 단원의 12개월 성적은 신분검사와 더불어 다시 교무부에 보고되고 그것은 법위사정에 반영되었다.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을 보면 “단장은 매년 연말에는 단원의 12개월 공부·사업의 성적과 신분검사를 일일이 시행하여 이상 단장에게 보고하고, 이상 단장은 다시 교무부에 보고²⁴⁾”하였다. 그리고 “교무부에서는 각 단장과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조사하여 특별한 성적이 있을 때는 육명부(六名簿) 승급 조항을 대조하여 적당한 대로 승급시키는 동시에 각 방면에 포창(褒彰)²⁵⁾하였다. 육명부(六名簿)²⁶⁾란 보통부(普通簿).특신부(特信簿).법마상전부(法魔相戰簿).법강항마부(法強降魔簿).출가부(出家簿).대각여래부(大覺如來簿)를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법위등급(法位等級)에 해당된다. 교무부에서 단장과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조사하여 특별한 성적이 있을 때 육명부(六名簿) 승급 조항을 대조하여 적당한 대로 승급시켰다는 것은 교무부에서는 단장이 연말에 보고한 단원의 12개월 공부·사업의 성적을 법위사정에 반영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원불교를 연 동기는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다. 이러한 개교의 동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소태산 대종사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챙기도록 하였고,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으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해 교화단을 조직하였고, 교화단에서 단원은 매일 스스로 상시일기를 기재하였으며, 단장은 그 성의를 권면하고 방법을 지도하며 공부의 진퇴를 대조하기 위하여 매월 그 성적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단장이 조사한 단원의 12개월 성적은 신분검사와 더불어 다시 교무부에 보고되고 그 것은 법위사정에 반영되었다.

2) 수도인의 일과(日課)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며,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그 구체적 실행 방법은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그리고 교화단을 활용한 상시일기 조사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원기 10년에 제정 발표되었고, 상시훈련을 조사하기 위

24)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단규원칙’ 제11장 단장의 권리와 의무 제48조.

25)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단규원칙’ 제12장 상별 제49조.

26) 「월말통신」 제28.29호,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1권(원불교출판사, 1994년), 247쪽.

하여 시행한 상시일기 조사법은 원기 13년부터 그 용지가 인쇄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상 수행의 요법은 이보다 늦게 원기 23년에 발표되었다. 그래서 상시훈련을 조사하는 상시일기 조사 내용에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사하는 부분이 없다. 원기 23년에 발표된 사종일기법에도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사하는 부분은 없다. 처음 ‘본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될 정도로 교리상 중요한 수행법인 일상 수행의 요법을 실행하고, 그 실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상시일기 조사에서 빠진 것이다.

대산 종사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일상 생활 속에서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수도인의 일과’를 밝혀 주었다. 대산 종사는 “매일 본교 일상수행의 요법 9조와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로써 공부의 강령을 삼고 나아가되 특히 다음과 같이 세 때를 정하고 공부하는 대중을 잡아하면 좋을 것이다.²⁷⁾”라며,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은노력, 저녁은 참회반성하는 수도인의 일과를 밝혀 주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²⁸⁾고 하였고,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된다²⁹⁾고 하였다. 이렇게 일상 수행의 요체가 되는 두 법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도록 대산 종사는 ‘수도인의 일과’를 밝힌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그리고 교화단을 활용한 상시일기 조사법’의 수행 체계는 ‘수도인의 일과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그리고 교화단을 활용한 상시일기 조사법’으로 단순화 된다. 여기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 주고 알려 주는 법³⁰⁾이므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수도인의 일과를 도와 주고 알려 주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문답.감정.해오.정기훈련.예회 등은 모두 수도인의 일과를 도와 주고 알려 주는 법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도인의 일과는 개교 동기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이 된다. 아울러 상시훈련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시일기 조사법을 두었듯이 수도인의 일과를 조사하기 위한 상시일기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시일기를 정립할 경우 사종일기법을 참고하여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27) 『대산종사법문집 Ⅱ』 제1부 교리, 삼학공부 ‘삼학과 일상 생활’.
세 때에 하는 구체적 공부 내용은 지면이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함.

28) 『대종경』 제3 수행품 1장.

29) 『대종경』 제6 변의품 26장.

30) 『대종경』 제6 변의품 26장.

기재할 수 있는 상시일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수행 방법인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그리고 교화단을 활용한 상시일기 조사법은 새로이 수도인의 일과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그리고 수도인의 일과를 점검하는 상시일기로 재정립 할 수 있다. 이때 상시일기는 4종 상시일기법을 참고하여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해야 모든 대중들이 다 이 공부길에 들 수 있을 것이다.

2.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 정체성 확립

1) 원불교 교화 정체성

일반적으로 교화(教化)³¹⁾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체성(正體性)³²⁾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원불교 교화’는 하나의 ‘활동’이지 이를 ‘존재’라 말할 수는 없기에 ‘원불교 교화 정체성’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불교 교화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는 원불교 교화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 교화가 일반 교화와 달리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원불교 교화의 지향점과 방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 교화의 지향점은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곧 개교 동기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며,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그리고 교화단을 활용한 상시일기 조사법’이다. 이를 총칭하여 ‘교화단과 훈련’으로 표현한다면 원불교 교화는 ‘교화단과 훈련’이라는 방법으로 그 지향점인 개교의 동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원불교 교화는 ‘교화단과 훈련’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2) 일일시시로 자기훈련 교화단으로 인류훈련

31) 1.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2. (불교) 부처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함. (표준국어대사전)

32) 1.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표준국어대사전)

2.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진 존재.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소태산 대종사는 앞으로 시방 세계(十方世界)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 일단(十人一團)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한 후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³³⁾.”고 하였다. 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9인이 그 스승에게서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9인을 가르치고, 그 아래 9인은 또 자기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각각 아래 9인을 가르치는 형태로 계속 진행해가면, 한 스승이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것이다.

파란 교행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면 이러한 교화단 조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산 종사는 “일일시시로 자기훈련을 하고 교화단 훈련으로 인류훈련을 하자³⁴⁾”고 하였다.

각 단원은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강령을 삼은 ‘수도인의 일과’를 실행하고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권면하기 위해 매일 상시일기를 기재함으로써 일일시시로 자기훈련을 하고, 교화단회에서 각 단장은 단원의 이러한 자기훈련에 대해 그 성의를 권면하고 그 방법을 지도하며 공부의 진퇴를 대조하기 위해 매월 그 성적을 조사하는 교화단 훈련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일일시시로 자기훈련을 하는 가운데 교화단 훈련을 진행한다면 인류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개교의 동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 교단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교화단 훈련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천의 과정을 겪으며 퇴색되었다. 초기 교단 당시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하던 일제는 1937년에 중국과 전면 전쟁에 돌입하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의 조선에 대한 탄압과 약탈은 더욱 심해졌고, 초기 교단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원기30년(1945)부터 그들은 교화단 조직을 위험시하여 이를 금지하였다.³⁵⁾

원기30년 일제에 의해 교화단 조직이 금지된 이후, 초기 교화단은 해방 후 혼란한 정국과 건국사업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재정비의 과정이 없이 방치되어 그 원형이 회복되지 못하고 기존의 단 조직이 와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초기 교단에서 교화단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단원들의 상시훈련이 더 이상 교화단을

33) 『대종경』 제1 서품 6장.

34) 『대산종사법문집 Ⅲ』 제4편 훈련 42.

35) 『원불교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5장 교단체제의 완비 1. 일정의 탄압과 해방.

통하여 조직적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단원 각자의 뜻으로 남겨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단적으로 상시훈련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교단의 내실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교화단 훈련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교화단 훈련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화단 교재가 새로이 정비되어야 한다. 초기 교단에서 사용된 교화단 교재는 원기 16년 발간된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이다. 교화단에 대한 제반 원칙과 세칙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의 부칙에는 “본 단규 원.세칙은 본회 창립한도 제3회 36년 이내에는 수시 가감”하며, “본 단규를 가감할 시는 교무부 기초에 의하여 정수위단의 심의를 거쳐 종법사의 감정으로 결정”³⁶⁾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 후 일찍부터 구상해 온 십인 일단(十人一團)의 단법이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에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창립 제1대 36년 이전까지 그 수정 보완을 통해 완결하리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 그리고 해방 후의 혼란한 정국과 한국 전쟁의 발발 속에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에 대한 수정 보완은 이 책이 발간된 원기 16년 이후 이루어지지 못한다. 교화단 훈련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는 초기 교단의 교화단 교재였던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을 수정 보완하여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이 충분히 담기는 동시에 시대에 적합한 교화단 교재를 새로이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3) 교화단 중심의 교구 자치 교화

원불교 교화는 ‘교화단과 훈련’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실질적인 교화가 이루어지는 전국의 각 교당에서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 정체성 확립’은 교단 제3대 제3회 설계의 핵심과제 20개 중 6번째로 선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이 각 교당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구에서 이에 바탕한 교구 교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구마다 지역적인 특색이 다르기에 총부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교화 정책을 제시하고, 각 교구에서는 전술적 차원에서 그 정책을 지역 특색에 맞게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교단에서 추진하는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교화 정책이 각

36)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부칙.

교구에 맞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교구장은 출가교화단 수위단의 단원인 동시에 항단 단장이고, 지구장은 대체로 각단 단장이며, 교당 교무는 각단 단원인 동시에 교당 재가교화단의 총단장이다. 그러므로 각 교구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세운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교화 정책은 일정 부분 출가교화단 조직을 통하여 각 교당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출가교화단 행정과 재가교화단 행정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출가교화단 행정은 수위단 사무처가 맡고 있고, 출가교화단 정기훈련은 중도훈련원이 맡고 있으며, 재가교화단 행정은 교화훈련부가 맡고 있기에 이러한 관련 부서와 기관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